

## 2 제 6 차 IRF 카이로 地域道路會議

車 東 得

〈國土開發研究院·交通計劃學博士〉

지난 9. 22~9. 26間 인류문명의 발상지의 하나인 이집트의 Cairo市에서 世界的 道路技術者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道路에 관한 여러가지 技術情報를 교환하고 自國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다. 본 회의는 國際道路聯盟의 후원으로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의 사이사이에 세계의 각 지역별로 개최하는 地域大會로서 이번에는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중동 및 유럽지역의 關係者들이 주로 참가하였다.

우리나라 代表團의 참석은 1989년 4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계총회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會議의 進行過程을 살펴보고 참석자와 會議進行本部와의 접촉을 통하여 次期 세계총회를 적극적으로 弘報하여 11차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 1. 國際道路聯盟과 우리의 입장

국제도로연맹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으로 會員간에 技術情報交換을 촉진함으로써 도로의 計劃·建設 및 維持·補修 등 도로교통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8년 설립된 비정치적 비영리 국제단체이다.

현 회원국은 68개국으로 400여개의 政府機關, 協會, 建設業體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이 가입하고 있으며 미주지역 본부는 미국의 워싱턴 D.C, 유럽지역은 제네바로 2元체제를 이루고 있다. 매 4년마다 세계총회 그리고 매 2년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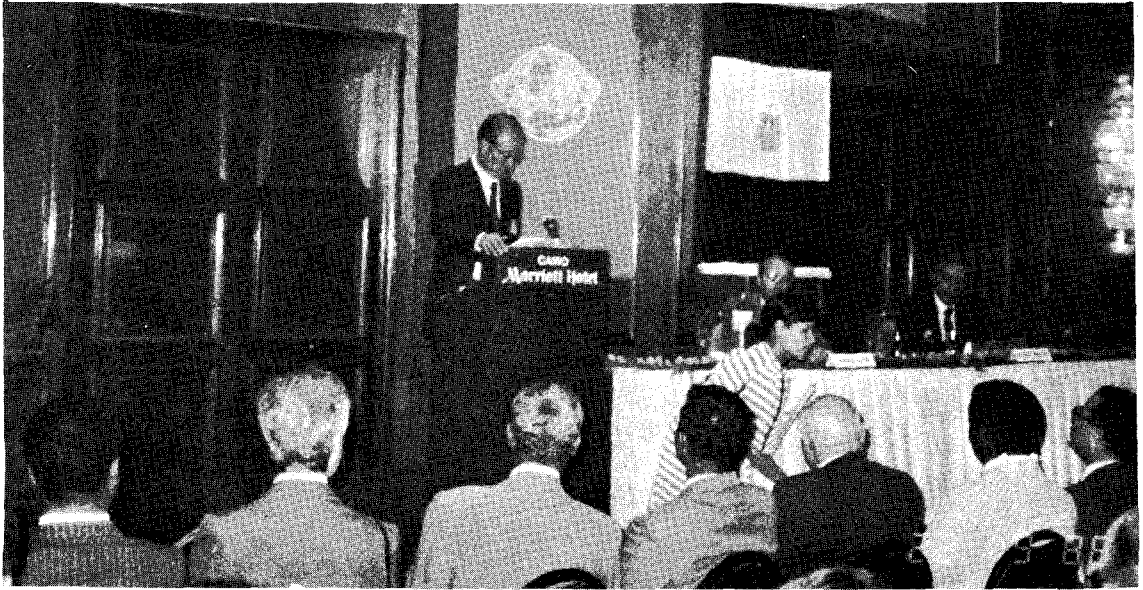
地域會議를 개최하는 주업무 이외에 道路技術研究와 관련 技術圖書 및 刊行物을 출판하고 國際機關과의 협력 및 政府諮問 등을 행하고 있다.

설립 이후 10차에 걸쳐 세계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국력신장과 더불어 道路部門 산업발달에 힘입어 11차 총회개최국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公式적으로는 지난 84년 10월 브라질의 리오테 자네이로에서 열린 제 10차 세계총회에서 당시 建設部 노원태 도로국장께서 건설부장관을 대신하여 次期 總會개최 수락연설을 하고 참가국들의 많은 참여를 권유한 바 있다.

그 이후 85년 4월에 한국도로공사내에 제 11차 세계총회를 위한 準備委員會가 구성되고 각 분야에 걸쳐 차기 총회 준비사무를 시작하였다.

IRF 세계총회는 그 參席規模나 參與陣의 구성으로 볼 때 단순한 道路技術者의 모임의 차원을 넘어 國際外交 및 道路技術市場의 活性化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 10차 브라질총회의 경우, 공산권국가를 포함하여 86개국에서 약 2,400여명이 참석하여 225편에 달하는 技術論文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열린 情報交換을 하였으며 각국 대표단들은 나름대로 기술전시관을 통하여 국제 親睦 및 理解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次期 세계총회 개최 준비를 함에 있어 우선 그동안 우리의 道路技術能力을 향상시킨 도로관계 전문공무원, 기술자, 업



〈사진-1〉 金聖培會長(前建設部長官)의 대표연설

제 등의 노력과 국제대회 유치에 협조해 주신 관련 産業界의 창조적 정신이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이들 노력을 성공적인 總會開催로 이어지도록 참여자들의 각오와 분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總會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많은 參與者 誘致가 필요하며 時宜性 있고 질 높은 技術論文이 수집되어야 하고 道路 및 道路關聯 産業界의 技術開發 및 弘報努力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地理的으로 태평양을 끼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각종 地域會議에 代表團을 파견하여 우리의 입장과 준비상황을 알리고 관계자의 개인적 친분을 증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직접 접촉이야말로 서로 상대방 국가의 필요한 점을 이해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최우선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官民 10 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이 이번 아프리카 地域會議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6 차 아프리카 地域會議

필자로서는 이번의 아프리카 여행이 초행길이

였으며 인류문명의 발상지를 片鱗이나마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초행이었지만 비행기가 홍해를 지날 때쯤은 지도에서 익히 보아온 타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홍해에 연한 남서쪽의 아프리카 대륙은 푸른 기운이라고는 한 점 발견할 수 없는 황량한 폐허로만 비쳤다. 잠시후 드디어 목적지인 Cairo 공항에도 도착하였으며 현지시각으로 아침 6 시경이라 공항은 잠자듯이 조용한 분위기였다.

떠나올 때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입국수속대로 향하였다. 그러나 관광이 국가의 중요한 外貨 收入源인 나라라서 그런지 환전소에서 美貨 150 불을 바꾸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비자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서울의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그냥 왔었는데 공항 당국에서는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의 海外情報가 너무나 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하는 일이었다. 공항 경비원들은 모두 군복차림에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분쟁국가의 틈바귀에 있음을 실감케 하였다. 그러나 경비원들의 어슬렁거리는 태도로 보아서 급할게 하나도 없다는 식의 이 나라

국민성의 일단을 대하는 것 같았다.

택시를 타고 회의장인 Marriott 호텔에 도착하니 시계는 이미 9시를 넘고 있었다. 호텔은 식민지풍의 우아한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IRF 회의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였다. 도착 즉시 워싱턴 본부에서 온 Wilson 회장을 만나 이틀 후에 있을 논문 발표를 의논하고 技術委員會委員長인 Bahgat 교수를 만나 이집트측 진행위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나니 비로소 오랜 비행기 여행에서 오는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 왔다.

會議場을 둘러 보기로 하고 각 分科會議室을 드나들다가 우리 대표단이 설치해 놓은 홍보데스크와 현수막을 대하자 감개가 무량하였으며 선발 대표단을 만나 그동안 이미 회의주최측과 협의의를 마치고, 특히 金聖培 한국양회공업협회장(前 建設部長官)의 11차 서울 총회 초청연설 일정도 확정했으며 Cairo 주재 영사관과도 협조체제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든든하였다.

본 회의의 대회장으로 사용된 Cairo Marriott 호텔은 약 20,000 평 규모의 대지위에 1,300개의 객실, 테니스 코트, 풀장 등을 갖춘 넓은 정원과 불란서식의 각종 부속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집트 최대의 호텔로서 호텔 2층에 위치한

### Cairo 회의 참가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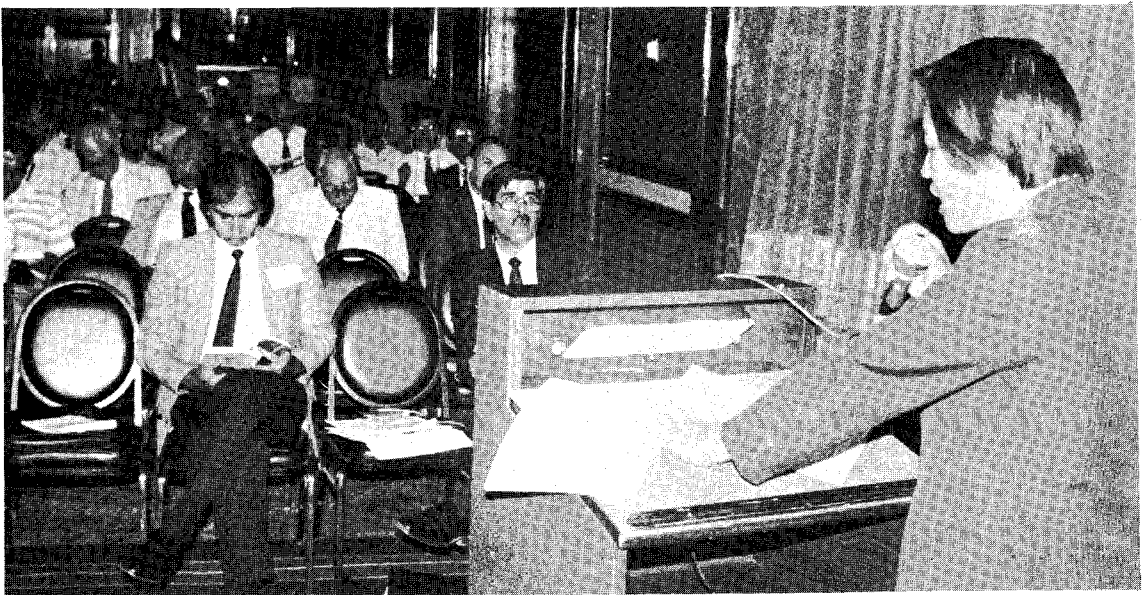
〈表-1〉

대	륙	참가국수	참가자수	비고
아	시	3	12	한국 10명참가
아	프리카	24	360	
유	럽	18	301	
북	미	3	30	
중	동	4	25	
대	양주	1	2	
계		53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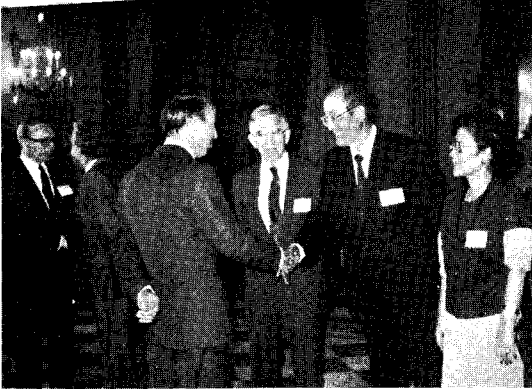
AIDA Ballroom이 會議의 대회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약 1,000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회의실로서 본 회의의 개·폐회식장으로 활용되었다. 技術分科委員會를 개최할 때는 이 대회장을 칸막이로 막아 4개소의 소회의장으로 만들어 2개 회의실은 技術分科 회의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 방에서는 각국에서 준비한 기술관계 영화를 상영하였다.

회의실 입구 우측에는 각국의 전시실을 마련하여 自國의 建設裝備, 建設資材, 建設工法 및 道路計劃, 運營管理技術을 소개하여 관심있는 회의 참가자들과 관측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開會式은 Mubarak 이집트 대통령의 환영사를



〈사진-2〉 技術論文을 發表하고 있는 필자



〈사진-3〉 참가국 대표들과 만나고 있는  
金聖培회장

Lutfi 수상이 代讀하고 組織委員會, IRF 本部, 관련기관 代表들의 환영사로 오전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53개국으로부터 730명의 공식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次期總會主催國으로서 關민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開會式에서는 駐이집트 외교사절들이 초청되었다. 참석대표 중에는 18명의 長·次官급 인사들이 있었으며 이중 주요국 장관들은 따로 이집트대통령을 접견하였다.

본 회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技術委員會는 2개 會議室에서 道路의 7개 부문 즉 道路財政, 計劃 및 建設, 維持管理, 裝備 및 資材, 道路安全施設, 都市交通 및 대륙간 連結道路 問題 등 174편의 기술논문이 발표되었다. 각 分科別로 기술회의 의장은 각국의 각료급들로 구성, 참가국 정부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國際會議의 명분을 크게 내세우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회의와 회의 중간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 중에는 서로 관심있는 국가의 대표들과 만나서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하는 적극적 분위기가 있었다.

### 3. 한국대표단의 활동

#### 1) 제 11차 세계총회 초청연설

한국 대표단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대회 開會式에서의 차기총회 초청연설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회의는 地域大會이며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우리나라에서 멀리



〈사진-4〉 대회조직위원장인 이집트 교통부차관과  
환담하고 있는 대표단

멀어진 아프리카, 유럽지역 국가들이었던 만큼 전 참가국 대표가 주지하고 있는 開會式에서 초청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次期總會 및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IRF 워싱턴 본부의 윌슨회장의 배려로 우리나라 참가단을 代表해서 金聖培회장께서 모든 참가국 대표들에게 우리의 세계총회 準備狀況, 우리나라의 발전상 등을 소개하고 차기 총회 참석을 권유하는 초청연설을 하였다(〈사진-1〉 참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대표들은 우리의 초청연설에 크게 감명을 받은 듯하였다. 후에 개별적인 접촉시 초청연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깊은 관심을 표하였다. 대부분 어려운 經濟與件에 허덕이고 있어서, 부존자원 없이 빠른 시간에 經濟的 復興을 이룩한 나라라는 소문에 진작부터 관심이 많았다는 말들을 하곤 하였다.

#### 2) 우리나라 홍보활동

우리 대표단의 이번 회의 참석의 주요 目標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道路專門 人과의 접촉을 통해서 차기총회에 보다 많은 參席者를 誘致하는데 있었다. 우리 대표단은 출발에 앞서 차기총회 소개 현수막을 만들고 서울 대회 안내 팜플렛과 한국소개 책자 등을 준비하여 갔었다.

현지에서 IRF 워싱턴 본부의 Wilson 회장, 제베바 본부의 Carriere 사무총장 등을 만나서

올총회 홍보활동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이집트 組織委員會 측과 접촉하여 대회장 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데스크에서는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어성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소개 책자 등을 배부케 하였다. 가져간 안내 책자 등이 대회 중반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며 소개책자 중 서울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대표들의 탄성이 그치지 않았다.

### 3) 기술논문 발표

현지에서 우리 대표단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사항은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아닌 외부의 인식이 우리를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추상적인 평가에 비해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의 實體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대회 準備委員會의 요청에 따라 없는 시간을 쪼개어 대회 發表論文을 마련하느라 고생을 했지만 현지에 가서 느낀 분위기에서 볼 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소문에 걸맞는 대회참석 준비가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의 경험을 理論的 체계로 정리하여 세계 道路專門人들 앞에서 뽐뽐이 발표할 수 있었음에 뿌듯한 긍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준비해간 論文은 우리의 과거 道路發展方向에 입각한 國家幹線網의 효율적 構成方案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 財源으로 經濟發展計劃과 병행하는 道路網構築方案을 제시한 것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 아프리카 대표들뿐만 아니라 유럽·북미 대표들과 우리의 과거 경험 및 장래 道路發展方向에 관하여 共同討議를 함으로써 개인적인 유대관계 증진은 물론 차기 대회에 대한 專門家로서의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4) 기타 활동 상황

대표단들은 낮 동안의 공식일정을 마치면 매일 저녁 개최되는 각종 만찬회에 참석하여 가능

한 한 많은 인사들과 접촉하여 차기대회 참석을 권유하고 개인적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주최국인 이집트에서는 멀리 동방에서 온 차기 총회 주최국인 우리 대표단들에게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交通部장·차관을 비롯하여 組織委員會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단독 면담을 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대회준비에 따르는 實務的인 어려움을 事前에 알게 되어 다음 총회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대표단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대회 組織委員長이며 이집트 交通部차관인 Mr. Shawky는 우리의 참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차기 서울 총회에 대규모의 이집트대표단 파견을 약속하여 주기도 하였다.

## 4. 회의참석 소감

이번 회의는 IRF 아프리카지역 道路會議였으나 53개 참가국 중 아프리카 국가는 24개국으로 아프리카국가들뿐만 아니라 선진각국에서 다수의 代表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技術改善을 위한 論文發表를 하는 한편 친선의 교류를 이룩하고 있어 IRF 회의의 意義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

특히 技術會議 이면에서는 일부 會員國들이 自國의 독립 부스(Booth)를 설치하고 도로분야 기술·건설장비·자재 등을 소개하면서 상품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국가에서는 각국의 주요인사들을 초청,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自國의 國益을 도모하기 위한 비정치적 로비 활동의 무대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았을 때 IRF 회의는 도로분야의 技術交流와 친선을 넘어선 중요한 모임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접촉한 주요인사들과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IRF 관련회의에서 접촉하여 친해놓은 사람들과 國益을 염두에 둔 지속적 접촉을 위해서는, 그들 신분에 상응한 우리나라의 人士를 相對役으로 선정, 연락이 계속될 수 있는 體制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